

##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복식 선언문과 그 복식연구

李 琴 熙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Futurist Manifestos and Clothing in Italy

Keum Hee Lee

Departmen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works of the Futurism were developed along with manifestos and statement in publishing. Futurist aesthetic and ideological agenda on futurist fashion displayed in manifestos on clothes. Futurist fashion propagated in consummate Futurist style through the written manifesto. The Futurists anticipated much of modern fashion phenomenon. In Futurist Men's Clothing, men's clothing is aggressive, agile, dynamic, simple and comfortable, hygienic, gay, luminous, volatile, asymmetric and variable.

In Futurist Manifesto on Woman's Clothing, woman is now a principal agent of revolt, a walking synthesis of the audacious, performance-oriented aesthetic of the futurist universe. For Futurist woman's clothing they claimed ingenuity, daring, and economy.

The Futurist Manifesto of Italian Hat was continued with their provocative style and radical ambition. Their innovation will rescue a lagging Italian expert and restore the Italian male to his former Latin Vigor. Speed, dynamic, utility, and functionality are the main characters.

In Futurist Manifesto of Italian Cravat, Futurist cravat is called Anti-cravatta, which is anti-traditional style and made of unconventional materials.

In general, the Futurist argued for clothes that promoted simple and functionality. These Futurist fashion project were invention of the new style, avant-garde style, in daily wear and were realized for the renewal of taste in clothing design as a modernizing factors.

#### I. 서론

이탈리아에서 일기 시작한 미래주의 운동은 아방가르드 운동으로서<sup>1)</sup>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에 항거하여 과거의 모든 기존 예술형식으로부터 예술을 해방하고 예술이 생활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제<sup>2)</sup>를 추구하였다. 즉 기존 관념으로부터 초월하여 새로운 예술형태를 창조해 내겠다는 예술가들의 의침은 철저한 시대배경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가치관의 미적 감각으로 미래를 찬양한 미래주의에서 최초로 "예술과 생활(art and life)"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는 팝 아티스트들의 주장보다도 50년이나 빨랐던 것<sup>3)</sup>으로 "생활

1) *Encyclopedia of World Art*, (New York: McGraw-Hill Company, 1971), p.150.

2) Giovanni Lists(정진국 역), *미래파*(서울: 열화당, 1991), p.14.

3) Maurizio Fagiolo dell'Arco, *Balla The Futurist*, (New York: Rizzoli, 1988), p.7.

예술의 기원"<sup>4)</sup>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미래주의는 현대생활에 좀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문화의 도래 속에 생활 예술로서의 패션의 역할을 구해내고 20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대화와 동일어로 간주되는 유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5)</sup>. 패션영역에서의 이와 같은 시도는 과거의 모든 표준을 거부하며 이전의 디자인 지침과 결별하는 반 전통성을 주장하는 문서화된 선언문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전파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미래주의자들이 이론화한 미래주의 복식 선언문의 내용을 근거로 각각의 선언문에서 주장된 복식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직접 디자인한 복식의 실패를 찾아 디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래주의 복식에서의 현대화 관점이 시대적 요구와 함께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미래주의 복식이란 미래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미래주의 예술가들이 추구하고 주장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뜻하는 것으로 패션의 영역에 있어서는 남성복, 여성복, 모자, 넥타이 분야를 다루었다.

## II. 미래주의 복식과 선언문

### 1. 남성복과 선언문

#### 1)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

1914년 발라(Giacomo Balla, 1871~1958)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필사본 원고 서문과 같은 제목의 『Manifesto futurista del vestito da uomo(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선언문은 5월 20일 밀라노의 미래주의 운동 본부에서 발간한 전단에 실린 『Le vêtement masculin futuriste(미래주의 남성복)』이라는 제목의 붙어판이었다.

이 선언문의 서두에는 “인간은 늘 상복이나 무거운 갑옷, 엄숙한 재의, 질질 끌리는 망토 같은

것을 입어왔다.”고 의상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는 동안, 옷차림은 늘 정적이고, 무겁고, 주름이 많고, 소매는 부풀렸으며, 의식적이고, 엄숙하고, 성직자 같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색상과 형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인간의 신체는 언제나 검은색을 입어서 우울했고, 벨트로 억압되었으며, 주름이 치렁치렁 달린 옷에 짓눌렸다.”고 애통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거리는 단일 색조로 침울하고 의기소침하고 꼭 장례식 같은 기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하였다.

선언문의 본문에서는 “장의사들도 거부할 것 같은 상복들, 모든 중성적인 색상들, 줄무늬, 체크무늬, 물방울무늬의 천들, 걸음을 느리게 하는 형태와 색상의 조화, 근육을 속박하는 정적인 선으로된 대칭적인 재단, 불필요한 단추들, 장식 것과 풀먹인 커프스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주의자들의 목표는 “인간을 로맨틱한 향수(鄉愁)의 나태와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시켜 거리의 군중들을 채색하고 젊게 하고 나아가 멋진 축제 의상을 입히자”는 것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미래주의 의상은 다음과 같다. ① 역동적인 색상과 기하학적인 모티브로 된 직물 디자인의 역동성, ② 비대칭성, ③ 신체의 유연성을 높이고 도약을 도와주는 민첩성, ④ 입고 벗기 편리한 단순성과 편리함, ⑤ 재단 및 착용의 위생(衛生)성, ⑥ 매우 즐거운 무지개 빛색의 활기참, ⑦ 빛을 발하는 직물로 비가 올 때 빛을 주위로 퍼뜨릴 수 있는 발광성, ⑧ 강렬하고 공격적이고 강압적이고 맹렬한 색상을 사용한 의지성, ⑨ 색조와 역동적인 선의 도약에 의한 비상(飛上)적이고 대기(大氣)적인, ⑩ 신체에 끊임없이 기쁨을 재창조하고 활기를 주며 직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명성(短命性), ⑪ 두께와 크기, 색상이 다른 여러 가지 천을 덧붙이는 ‘모디휘간티’에 의한 가변성(可變性).

선언문 내용의 특징은 지배적인 역동적·형태적

4) Estate of F. T. Marinetti(Suzanne Brill, Translation), *Futurist Cookbook*, (SanFrancisco: Bed frod Arts Publishers, 1989), p.36.

5) Giovanni Lista, “Le Moda Futurists” in *Eruope 1910-1939 : quand L'art habillait le vêtement*, (Paris : Parismusees, 1997), p.22.

흥미를 원칙으로 젊어지는 채색을 제안하고, 옷의 역동적인 즐거움은 '한없이 많은 색상의 묘기'로 보석상의 유리 진열장에서와 같은 색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로써 "이러한 의상의 역동적 즐거움은 높게 솟은 미래주의 건물들 사이의 시끌시끌한 거리를 가득 메울 것이고, 보석상 진열장의 거대한 각 기둥의 번쩍거림을 사방에 증폭시킬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역동적 리듬의 무한히 새로운 추상적 영향력을 더해 가는 미래주의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덩치 큰 색상의 곡예를 보게 될 것이다."고 결론 짓고 있다.

## 2) 반(反)중성적 슈트의 미래주의 선언문

발라의 미래주의 남성복의 최종판은 1914년 9월 11일 밀라노에서 이탈리아어로 발간된 『반중성적 슈트: 미래주의 선언문(II Vestito Antineutrale: Manifesto futurista)』으로 전적으로 간섭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다.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 1876~1944)는 1912년에 발라가 이미 느끼고 191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얻은 미래주의 의상 실현에 관한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쓴 5월의 선언문을 기초로 하여 반중성주의 선언문을 위한 개정을 진행하였다. 1914년 9월의 선언문은 동년 5월에 출간된 프랑수에어에 나오는 '남성복'이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반중성적 슈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반중성적'이라는 말은 간섭주의적, 호전적, 반중성주의적이라는 말들의 의미가 논리적으로 전환된 것이다<sup>6)</sup>.

이 선언문의 서두에서는 장례식 분위기 같은 의상에 나타나는 중간 색조들이야말로 전형적인 중성적 감각이며 개트만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개탄하였으며 '영웅의 죽음'에 무덤 파는 사람들에게조차 어울리지도 않을 상복을 입혀 동정심이나 연민을 불러 일으키기보다는, "붉은 옷을 입혀 기억에 남게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모든 중성주의와 소심하고 무사안일적인 우유부단함과 부정적인 비관주의와 향수적이고 낭만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무기력함으로부터 이탈리

아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탈리아에 용감함과 미래주의의 모험성을 입히고 모든 이탈리아인들에게 호전적이고도 활기에 넘치는 의상을 입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언문에서는 미래주의의 의상에 상당한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주의 의상이 갖추어야 할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강자의 용기와 약자의 예민함을 극복시키는 '공격성', ② 신체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격투와 경주 또는 돌격시 쉽게 돌진할 수 있는 '민첩성', ③ 위험과 속도와 공격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평화와 부동성에 대한 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직물디자인과 색채의 '역동성', ④ 소총을 잘 겨누고 개울을 잘 건너고 해엄을 잘 칠 수 있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단순함과 편안함', ⑤ 오랜 행진과 가파른 산행에서도 피부가 잘 숨쉴 수 있는 '위생성', ⑥ 강렬한 무지개 빛으로 채색된 소재와 강렬한 색채를 이용한 '활기참', ⑦ 겁 많은 군중들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발광성'을 추가하고 있다. ⑧ 전쟁터에서의 명령처럼 강하고 긴급하고 맹렬한 '강한 의지성', ⑨ 선의 독창적인 대립인 '비대칭성', ⑩ '단명성(短命性)', ⑪ 전투적이고 즐겁게 변화 가능한 '가변성'을 갖출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은 착장 방식대로 행동하고 사고한다"는 관점에 따라 반중성적이고 활기차며 호전성이 넘치는 의상들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였다.

## 3) 남성복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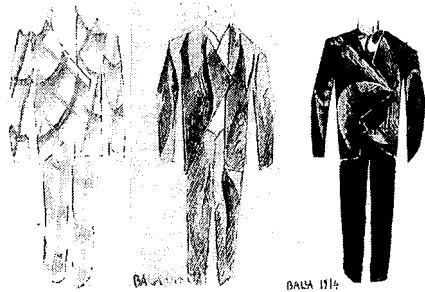
문화적 혁명가로서 도시 문명을 인식한 미래주의 의상 예술가들은 남성복의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발라의 패션의 '미래주의적 재건<sup>7)</sup>'을 최초로 해낸 사람이었다. 이 분야에서 다른 미래주의자들이 주로 단명하고 제한된 시도들 즉, 데페로(Fortunato Depero)의 '조끼(waist coats)'(1924~25년), 싸이아트(Ernesto Thayaht)의 '원피스형 작업복(overall)'(1920년), 리조(Pippo Rizzo)의 '구두와 다른 종류의 의복

6) Enrico Crispolti, *Il Futurismo e la Moda*, (Venezia : Marsilio, 1986), p.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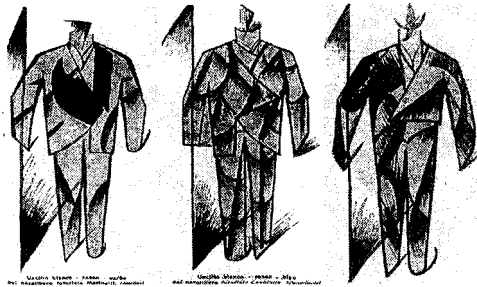
7) Enrico Crispolti, "Giacomo Balla e la vestito futurist", *Domus* 659, (Marzo, 1985), p.60.

(1920년경), 코로나(Vifforio Corona)의 '양산'(1925년), 보소(Di Bosso)의 '금속타이'(1933년), 크랄리(Tullio Crali)의 '체인으로 연결된 셔츠와 라벨이 없는 재킷'(1931~32년)과 같은 것을 단편적으로 디자인하였던 반면, 발라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1930년대까지 남성복과 여성복 및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작업하였다.

1914년 그는 모닝 슈트(그림 1의 左), 에프터눈 슈트(그림 1의 中), 이브닝 슈트(그림 1의 右)를 스케치하였는데 이는 노란색과 파란 색조로 된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불러 일으키는<sup>8)</sup> 디자인이었으며 원시적 다다이스트(proto-Dadaist) 톤으로 비대칭 선과 밝은 색상으로 된 수명이 짧은



<그림 1> 발라의 모닝, 에프터눈, 이브닝 슈트(1914) 「Europe」



<그림 2> 반중성복 전단지의 모닝, 에프터눈, 이브닝 슈트(1914) 「Europe」

hap-hap-hap-happy clothes<sup>9)</sup>를 주장한 것이었다. 이는 그의 예술 이념인 '예술-생활-축제(art-life-gaiety)'를 의상에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마리네티는 발라의 오리지널 그림을 흰색-빨강-초록의 살아 있는 이탈리아 국기의 옷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마리네티는 이 세 가지 색상의 복식을 칸질로(Frabcesco Cangiullo)에게 간섭주의 데모 때 입게함으로써 미래주의 복식을 전쟁을 선동하기 위한 도구로 본 그의 관점을 나타냈다. 즉 마리네티를 위한 흰색, 빨강, 초록색으로 된 모닝 슈트(그림 2의 左)와 칸질로를 위한 흰색, 빨강, 파란색으로 된 에프터눈 슈트(그림 2의 中), 그리고 보치오니(Boccioni)를 위한 흰색, 빨강, 초록색으로 된 이브닝 슈트(그림 2의 右)로 마리네티의 예술-생활-전쟁(art-life-war)을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 2. 남성복 변형과 선언문

### 1) 선언문

Thomas More는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인들은 10여 벌의 의상이 필요할 뿐 더 많은 옷을 가질 필요도 어떤 이유도 없다고 하였다<sup>10)</sup>. 예술가들은 새로운 의상의 유형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옷의 가지 수를 줄이는 이상적인 대책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작업복 겸 일상복을 등장시켰다.

1932년 Ernesto Thayaht(Michahelles)와 Ruggero Michahelles은 「Manifesto per la trasformazione dell'abbigliamento maschile(남성복 변형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복에서 추구된 활동의 자유스러움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옷을 효율적으로 입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무겁게 옷을 껴입는 방식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8) McLeod, Mary, "Undressing Architecture: Fashion, Gender, and Modernity", in *Architecture: In Fashion*,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 80.

9) *Ibid.*, p. 77.

10) Thomas More, "L'Utopie", (Paris, Ed, sociales, 1974), p. 129.

Aileen Ribeiro, "Dress in Utopia", 「Costume」, n. 21 1987, pp. 26-33.

Richard Martin, "Dress and dream : the utopian idealism of clothing", 「Art magazine」, (October 1987), p. 58-60.

또한 이 선언문에서는 옷을 제작하는 기준은 움직임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장신구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욕구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끈으로 묶고 조이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칼라, 커프스, 벨트, 루프, 벨벳과 혈액순환 및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든 속박의 상징물들을 없애야 하며 더 나아가 안감, 사용되지 않는 주머니와 쓸모없는 단추, 외투의 커프스, 비플, 칼라, 슝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몸을 둔하게 하는 스포티하지 않은 낡은 잔재들, 먼지와 땀의 발생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도시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의상은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신체 컨디션을 개선하며 비싸고 불편하며 비위생적인 의상의 강요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특히 사무실, 상점, 은행,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옷의 수와 옷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솔기, 가장자리 장식, 단추구멍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제작공정을 쉽게 하고 생산, 세탁, 다리미질, 주름잡기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의상을 오늘날의 생활 요구와 목적에 맞게 개량한 합리적인 의상인 튜타(Tutta)가 탄생되었으며 이는 경제적이고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편안하며 아름답다고 소개되었다.

## 2) 남성복 변형의 디자인

남성복을 변형하여 디자인된 튜타는 1918년에 피렌체에서 제작 발표된 over-all style의 일상복 겸 작업복으로 몸을 완전히 다 감싸는 미국의 ‘오버올(overall)’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Overall’은 어휘 그대로 ‘걸(위)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며, 컴비네이션, 주머니가 많이 달린 조끼, 작업용 바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선보였다<sup>11)</sup>. 이 튜타의 고안은 어두운 회색빛이 만연한 당시의 남성복과 전쟁 직후의 어려운 경제 상태와 고가의 비용을 고려해서 시작된 것으

로 실용적이며 새롭고 아름다우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대중 의상에 초점을 맞추어 시도되었다. 이는 발라의 선언문에 담긴 기능성이라는 원칙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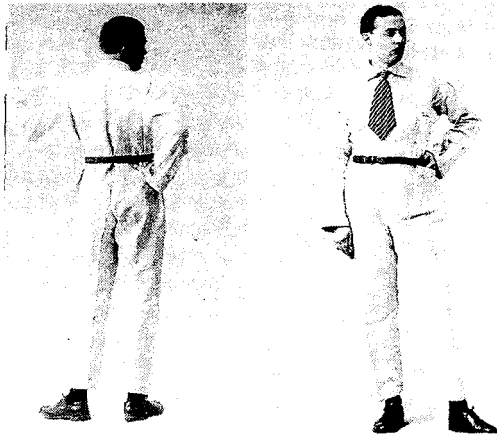
1920년 『Avvertenze』서문을 보면 ‘직선 라인으로 구성된’ 튜타의 제작에 관해 “1) 튜타의 원단은 다른 여분이 필요없이 유용하게 쓰임으로써 (metri 4.50 alto 0.70) 천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봉계의 최소화로 이루어진 원피스 형태로 제작에 있어서 경제성이 있다. 3) 단지 일곱 개의 단추와 허리띠로 이루어져 착용하기 간편하여 시간의 경제성이 있다. 4) 몇 주 후면 튜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질 것이며, 입는 사람이 최고의 편함과 안정된 느낌을 가질 것이며, 움직임에 있어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되어 축적된 에너지의 효과로 젊음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고 서술되었다.

싸이아트(Erenesto Thayaht, 1893~1959)가 제작한 튜타는 남성용과 여성용이 있다. 이 의상은 매우 간단하며 기본적으로 한가지 색상의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졌다. 네 개의 주머니가 달리고 앞 넥크가 펼쳐진 칼라로 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간단한 허리띠를 묶거나 샌들과 함께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산책용 지팡이를 손에 들면 새 옷의 매력이 돋보이게 되어 결코 노동복이나 작업복으로만 입혀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었다. 즉 밝은 색상의 줄무늬와 함께 입는 원피스로 허리 부분에서 조여 입게 되어 있으며 흰색 양말과 샌들을 신고 모자 없이 흰색 칼라를 벗히고 입으면 스마트해 보이며 간단한 가죽 벨트를 하면 멋져 보인다고 되어 있다(그림 3).

싸이아트는 튜타에 어울리는 재킷도 제작하였고, 챙이 넓은 모자 또는 베레모도 디자인하였다. 1926년경 그는 칼라가 있는 재킷과 함께 넥타이를 맨 튜타와 유사한 남성복을 제작하였는데 이 의상은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진 여름용 의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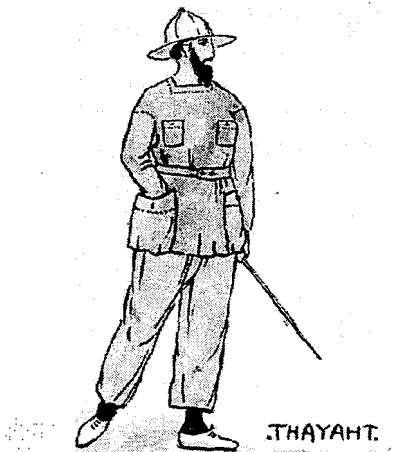
11) Pascale Gorguet-Ballesteros의 <진, 데님, 청바지(jean, denim, jeans): 두 개의 이름, 두 종류의 천, 한가지 형태 - 기원 연구>, cat., p. 25-38 참조, 청바지의 역사, MMC, 1994-1995, quoted in *Europe 1910-1939: quand l'art habillait le vêtement*, (Paris: Paris musées, 1997), p. 16에서 재인용.

12) Giovanni Lista, “Le Mode Futuriste” in *Europe 1910-1939: quand L'art habillait le vêtement*, (Paris: Parismusees, 1997), p.34.



<그림 3> 사이아트가 입은 두따(1926)  
「Europe」

MODELLO DI BITUTA  
CIÒ È UNA TUTA DI DUE PEZZI



<그림 4> 싸이아트의 투피스 두따  
(Bituta, 1921) 「Europe」

재킷에 얇은 허리띠가 있다. 또한 1921년에는 바지와 상의로 구성된 '바이두따(Bituta)'를 디자인하기도 하였다(그림 4). 이는 단추와 깃이 없고 4

개의 주머니가 달렸으며 상의는 일직선으로 재단 되었으며 바지는 상의의 허리에 의해 지탱되어 있다.

그는 두따의 잇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남성복은 뻣뻣하게 꼴을 먹였고 그 직물들의 어두운 색상은 먼지와 얼룩을 가리는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두따는 과거의 우둔한 관습과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의상으로 현대적이며 다양하고 순수한 색상과 부드러운 선을 가졌다. 두따는 불필요하게 비싼 천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두따는 원단 사용의 경제성, 제작의 경제성, 시간의 경제성과 활동의 자유 및 용도의 다양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기능성, 실용성, 위생성을 갖추었다.

3. 여성복과 선언문

1) 선언문

1920년 2월 29일 볼트(Volt)에 의해 『Manifesto della moda femminile futurista(미래주의 여성 패션에 대한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문은 새로운 정력과 혁신의 에너지를 강조하는 격렬한 어조로 과거의 미적 유산을 부정하고 속도와 새로움과 대담한 착상성을 찬양하고 패션의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하자라는 의지를 포고하는 것으로 미래주의와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미래주의의 모든 분야를 직접 지휘했던 마리네티가 여성을 장식, 사치품, 감상적인 것과 동등시하고 여성의 드레스란 선반 위의 오랜 골동품과도 같다<sup>13)</sup>고 취급한 것과는 달리, 미래주의 여성복 선언문을 작성한 볼트는 여성과 미래주의를 동의어로, 여성의 패션이 미래주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 패션은 패션의 역동적 미덕을 몇 배 늘렸으며, 달리기엔 힘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선언문에서 그가 발전시킨 업적은 세 단어로 '독창성', '대담성', '경제성'이다. 첫번째, '독창성'은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13) F.T Marientti, "Destruction of Syntax Imagination without strings-words in freedom" in Pogginella, Giacomo Balla, pp. 97-104.

않았던 것으로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패션에 있어서의 창조성이란 본질적으로 여성의 특권이어서 왔다고 인식하였으며 예술가의 역할에 의해 계속되어야 할 창조성은 미래주의 예술가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오늘날의 꾸뛰에르가 명성 있는 신분이기를 기대하며, 위대한 시인 또는 화가가 패션점을 운영해야 하며 디자이너들은 오래된 대가들과 동등한 천재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그리고 단지 디테일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도로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의상을 창조하기 위한 예술가적 태도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념의 빈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번째, '대담성'은 의복에 새로운 유행을 집어 넣어 강조한 것으로 "여성 패션은 더 이상 색다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칭성을 폐기하고 지그재그 모양의 가슴선과 서로 다른 소매로 된 복이하고 요란한 옷, 양쪽이 서로 다른 지그재그식 장식, 양쪽의 색깔은 물론 구두의 높이마저도 달리하였다. 또한 여성에게서 현대적 삶보다 더 매력적인 것을 쟁취할 것을 주장하며 '기관총 여성', '무선 전신 안테나 여성', '항공기 여성' 등을 상상해 냈다. 볼트의 과장된 예술은 여성 실루엣에다가 미래주의 회화의 가장 공격적인 선과 변칙거리는 화려한 색채를 접합시킨다. 그리고 나선형과 삼각형에 대해 열광하면서 여성의 육체를 찬미하며, '예리한 기하학적인 조각칼로 여자의 환상적인 신체에 대해 열광하면서 조각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볼트의 대담성은, 마리네티가 속도의 미에 의해 풍성해진 기계시대의 놀라움을 주창하며 '격렬(violence)', '에너지(energy)', '대담(boldness)'의 새로운 예술을 요구하였다<sup>15)</sup>는 점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번째, '경제성'을 보면, 전후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볼트는 가죽 신발 그리고 실크로 된 옷과 같은 고급 소재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았

다. 이미 마리네티도 1920년 여성의 사치에 반대하는 선언문에서 'toilette'와 연결시켜, 여성의 사치는 사치의 병적인 망상이라고 보고, 천성적인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보석, 값비싼 천, 실크, 비로드, 모피, 향수 등을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선언문에서는 건축에 있어 대리석 왕국이라는 말이 쇠퇴한 것처럼, 여성복에서도 실크 왕국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볼트는 100여개의 혁신적인 신소재를 발표하였다. 즉 "우리는 작업실의 문을 활짝 열고, 유리 에다가 두꺼운 종이를 붙이거나, 온바지, 알루미늄, 도자기, 탄성고무, 생선 껍질, 포장용 천, 삼베, 대마, 가스, 신선한 나무, 살아 있는 동물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1915년 발라와 테베로의 선언문에 나오는 조형 복합체에 사용된 소재를 새롭게 선보였고 1914년 Sant'Elia의 미래주의자 건축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일회용 소재를 사용하였다.

미래주의 여성은 에밀리 브라운(Emily Braun)의 표현처럼 이제 반란의 주요한 증거자이며, 대담한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합성체(walking synthesis)'로서 미래주의의 우주미를 향해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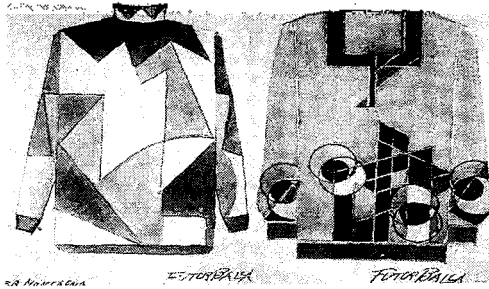
## 2) 여성복 디자인

1915년 이후 발라는 여성복중에서도 특히 블라우스 디자인에 힘썼으며 그의 풀오버(pull over)와 골프 블라우스(그림 5)는 남성복에서처럼 다이나믹한 울퉁감이 있는 페턴을 사용하였만 형태면에 있어서는 다이나믹함이 전혀 없어 남성복을 재평가한 종속적인 것<sup>16)</sup>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등산복, 테니스복, 수영복 등 8개 스포츠웨어를 디자인하였는데 그중 수영복은 매우 환상적인 것으로 형태는 간결하지만 밝은 색상을 극히 색다르게 사용한 것과 기하학적 형태의 모티브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그의 디자인은 간결한 의상에 기하학적인 형태, 대담한 페턴, 남성복에서와 같은 다이나믹한 울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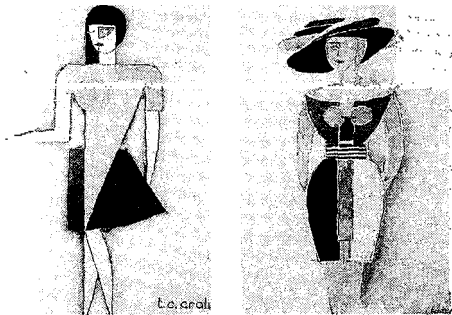
14) Emily Braun, "Futurist Fashion", *Art Journal* 49, no. 1 (Spring 1995), p. 35.

15) Horst de la Prix & Richard G. Tannery & Diane Kirkpatrick, *Art through the age*, H. B. J public, 1991, p. 965.

16) Emily Braun, *op. cit.*, p. 37.



<그림 5> 발라의 블라우스(1930)  
「Gegen den Strich」



<그림 6> 크랄리 여성복 원피스 연구  
(1931~1933) 「Gegen den Strich」

패턴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크리스폴티(Enrico Crispolti)는 「미래주의와 유행」에서 “발라의 여성복 디자인은 좀더 격해지고 좀더 장식적이 되었다. 그리고 좀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와 극도로 환상적이고 흥분되며 자극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발라는 여성복 디자인에서 우아함과 신선미를 유지했다.”고 평하였다.

볼트의 선언문에서 주장되어진 새로운 스타일의 의상은 1932~1933년 크랄리(Tullio Crali)의 디자인 스케치에서 대칭성이 폐지되고 각각 다른 모양의 소매, 형태, 색채, 길이가 다른 옷으로 잘 표현되었다(그림 6). 그의 여섯 개의 여성복 프로젝트인 「자이로스코프의 의상」, 「분석할 수 있는 의상」, 「흰색과 검은색 옷을 입고 산책하다」, 「구조주의 의상」, 「주름잡힌 의상」, 「올라가는 의상」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실례의 작품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선언문에서 나타난 새로



<그림 7> 싸이아트의 골프복  
(1923) 「Vionnet」

운 기능의 전투화, 기계화, 과학화된 의상을 주장한 무선 전신 안테나 여성, 항공기 여성, 모터보트 여성의 이미지를 주는 기계적 미와 대담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싸이아트의 여성복 디자인은 「Gazette du bon ton」에서 비오네를 위한 광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의 스케치를 보면 야회복, 여행복, 스포츠복은 물론 모피로 만든 옷에서부터 비치웨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의 골프복은 1920년대 스포츠 웨어 붐과 일치하는 시점에 디자인 된 것으로 유연하게 흐르는 수직선은 공을 칠 때마다 함께 움직이므로 선의 동적인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ダイ나미즘을 불러일으킨다(그림 7).

#### 4. 모자와 선언문

##### 1) 선언문

중성적인 것에 반대하는 미래주의 남성복 혁명은 이탈리아인의 민족적 창조성의 우월을 입증하는 승리라고 믿으면서 이번에는 미래주의 모자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이탈리아 모자의 세계적 탁월성을 지속시키고 새롭게 발전시켜 세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파시스트 국가 단체는 1928년 미래주의 모자



선언문을 지지하는 국가적 캠페인을 벌였다. 이는 프랑스 유행의 지배에서 이탈리아인들을 벗어나게 하고 이탈리아에 적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추진하는 계기로써 중요하였다<sup>17)</sup>.

그리고 1933년 3월에는 미래주의 모자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새로운 형태의 생산을 증대하려는 생산자들을 격려하며 이 경연대회는 이탈리아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전해졌다. Mino Somenzi는 로마의 주간지인 「Futurismo」 3월 5일자에 Marinetti, Monarchi와 Prampolim의 싸인이 담긴 「Il manifesto futurista del cappello italiano(이탈리아 모자에 대한 미래주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수많은 예술가와 모자상들이 호응했고 밀라노의 피사르(Pesaro)라는 화랑에서는 이와 같은 견본들의 전시회가 열렸다<sup>18)</sup>.

Somenzi는 「Futurismo」의 팜플렛에서 “미래주의 모자는 엄밀히 미래주의 사회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선언문은 1914년 발라의 선언문에서 시작된 이탈리아 남성복에 대한 바렘과 불가피한 혁명을 다시 이야기하며 새 모자에 대한 필요성을 탄원하고 과거주의적인 것과 중성적인 것에 반대하였다. 복부의 검정색을 반대하는 한편 유색의 기능적인 모자는 빛을 내고 신호를 내어 보호 및 방어의 기능과 함께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기계문명 시대의 속도의 미학과 실용의 미학에 어울리지 않는 전통적인 모자의 형태를 부정하며 이제까지 남성용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던 모자의 기능성을 재안하였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여러 산업용 합성 재료인 메탈, 네온, 파이프로 된 다채로운 장식용 한 모자들이 선보여졌다. 즉, 펠트, 벨벳, 밀, 짚, 코르크, 경금속, 유리, 셀룰로이드, 모피, 스폰지, 실, 네온, 램프 등이 단독 또는 조합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선언문에는 다양한 유형의 모자들이 제안되었다. 즉 일상용의 주행모자, 모임용의 야회모자, 연회를 위한 화려한 모자, 항공스포츠용 모자, 태양모자, 비모자, 등산모자, 해군모자, 보호모자, 시인모자, 홍보용 모자, 동시성 모자, 플라

스틱 모자, 촉각 모자, 조명-신호용 모자, 축음기 모자, 무선 전화용 모자, 우주파를 완화시키는 스크린이 달린 수지 장뇌·박하뇌 치료용 모자, 적외선 시스템을 통한 자동 인사용 모자, 이 선언문을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지성 전달용 모자이다.

또한 미래주의 모자 선언문에는 모자를 쓰지 않은 남성의 모습을 외모의 일면이 잘려져 나간 것으로 비유하였고 이와 같은 남성은 적극적이지도 스마트하지도 남성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탈리아 모자는 남성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멋스러워 남성의 모든 것을 가장 효력 있게 하며 이탈리아 민족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화하고 전세계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모자를 다시 써야 한다는 선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탈리아 미래주의 모자 선언문은 ‘이탈리아인의 자존심의 부활(the renewal of Italian pride)<sup>19)</sup>을 내걸고 새로운 모자에 대한 당찬 결의로 세계화를 각오하고 있다.

## 2) 모자 디자인

「싸이아트 : 새로운 전망들」이라는 Benhamou의 기사를 참조하면 파시스트 국가 그룹은 싸이아트에게 새로운 남성용 모자 견본과 국가 캠페인 전단과 그룹 로고 디자인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싸이아트는 플로랑스에서 산업 시위가 있던 1928년 4월에 모든 상황과 사회의 모든 계층에 걸쳐 커다란 성공을 가져온 모자를 디자인 하였다. 그의 모자 디자인은 비록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매우 간결한 스타일로 일상생활 및 작업용으로 적합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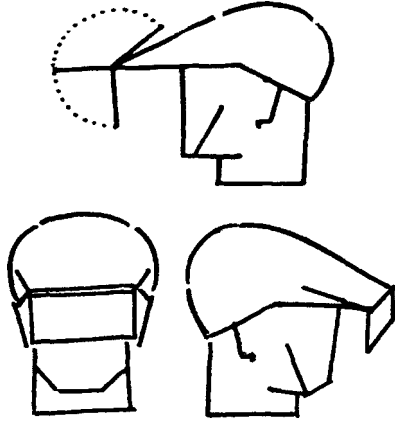
델레 시테(Mino Delle Site)의 모자는 정면의 앞 챙 부분이 필요에 따라 위로 꺾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그림 8) 소재는 알루미늄을 사용함으로써 가볍게 만들어졌다<sup>20)</sup>.

17) The american hatter, (mai 1928), p. 75, quoted in Viviana Benhamou, “Ernesto Thayaht(1893-1959): nouvelles perspectives”, in *Europe 1910-1939: quand l'art habillait le vêtement*, (Paris: Paris musées, 1997), p. 47.

18) Enrico Crispolti, *op. cit.*, pp. 142-144.

19) Suzanne Brill, Marinetti: *the Futurist cook book*, (San Francisco : Bedford Art, 1989), p. 36.

20) Enrico Crispolti, *op. cit.*



<그림 8> 델리시테의 에어로 다이내믹 모자  
(1932) 『Il futurismo e la moda』



<그림 9> 크랄리의 여성복 드레스의 모자  
(1932) 『Il futurismo e la moda』

1912년 발라가 디자인한 남성용 모자를 살펴보면, 모자의 챙이 전통적인 둥근 테가 아니고 직선의 다각형 테를 이루고 있고 크라운 부분도 둥근 산 모양이 아닌 중앙으로 뾰족하게 모여 전체적으로 기하학적인 선이 이용된 간결한 디자인이다. 여성용 모자 디자인의 경우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밝은 색상과 강한 색채 대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크라운 부분에서 곡선과 파상선이 꼬아진 형태로 된 모티브는 다이내믹함을 나타내고 있다.

크랄리가 1932년과 1933년에 디자인한 모자는 여성복 드레스용으로 밝고 강한 색상 대비와 와선형의 크라운 부분이 다이내믹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9의 上). 또한 여성복 스케치에서 발췌한 모자 디자인은(그림 9의 下) 나선형의 형태와 연속적으로 진전되는 색조와 명암이 기계적 형태의 운동성을 표현하는 아코디언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밝고 강한 색상의 연속과 형태의 반복은 율동적인 다이내미즘의 실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발라의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에서 “미래주의 모자는 비대칭적인 형태에 풍부하면서도 강한 색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태와 색채 면에서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5. 넥타이와 선언문

#### 1) 선언문

미래주의 예술가들의 마지막 활동인 에어 패턴의 영향으로 액세서리의 형태와 장식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하게 되었다<sup>21)</sup>. 그 중에서도 특히 넥타이는 반전통의 새로운 형태를 이루었다. Di Bosso와 Ignazio Scurto는 새로운 의류상품과 금속 소재의 넥타이를 발표하기 위해 『Manifesto futurista sulla caravatta italiano (이탈리아 미래주의 넥타이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미래주의 모자와 관해해서 마리 네티스의 전통에 반대함을 나타내며 “남성의 성격은 매고 있는 넥타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명제와 함께 새로운 넥타이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1933년 3월 27일 베로나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가벼운 금속 소재의 반(反)넥타이(anti-carvatta)’인 미래주의 넥타이는 “모든 사람, 모든 청소년, 모든 소년들로 하여금 태양과 빛의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고 소개하였다. 이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상의 ‘염색적이고 우울한 색조’인 전통적인 소재의 넥타이를 부정하고 가벼운 금속으로 만든 넥타이를 선보인 것이다. 이러한 미래주의 넥타이

21) Val rie Guillaume, “Esthétique du vêtement nouveau Genèse de l’ exposition”, in *Europe : quand l’art habitait le Vêtement* (Paris : Paris mus es, 1997), p. 8.

이는 모드를 젊어지게 하고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넥타이를 거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선언문의 ‘반(反) 넥타이’는 수평의 물결무늬가 있는 주석으로 만들어지거나 반(反)전통적인 장식 모티프들이 있는 불투명한 알루미늄으로 되거나, 현대적 도안이 가미된 광택나는 알루미늄이다. 또는 크롬으로만 도금한 금속, 광택과 불투명함이 점점 짙어지는 알루미늄, 귀한 금속, 놋쇠, 구리로 만들어진다. 사용된 금속들의 두께는 0.2~0.4mm 이어야 하고 무게는 최소로 해야 하고, 매듭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대신 가벼운 고무줄로 걸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반(反)넥타이’는 “모든 햇살과 이탈리아인들이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파란 창공과 모든 햇살을 반사함으로써 인간의 가슴에 있는 우울함과 열세주의를 없애 버리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탈리아인들은 교수형 당할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남성들처럼 옷을 입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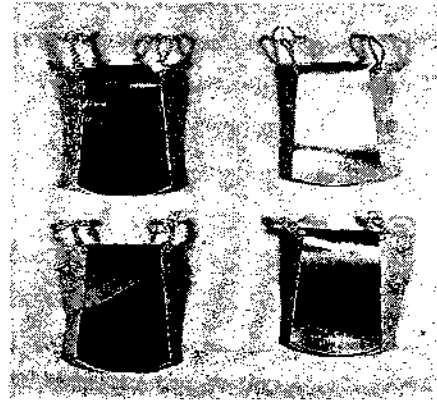
## 2) 넥타이 디자인

미래주의 의상은 ‘전기불 램프로 장식되어진 옷’으로 예견되었는데 이는 발라의 넥타이가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통적인 스타일의 넥타이를 거부하고 미래주의 의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넥타이를 시도한 것이다. Anton Giulio Bragaglia가 쓴 일기에 의하면 발라의 넥타이는 “시민들에게 처음 보여졌을 때, 셀룰로이드를 투명화시켜 만든 것으로 색을 입힌 소형 전구와도 같았고 작은 상자 같은 넥타이였다. 그가 강연에서 단추를 누르자 아주 예리한 넥타이가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로 시비스(Euro Civis)에 보고된 간절로(Francesco Cangiullo)에 따르면 그 당시 발라는 불꽃이 튀고 무지개 빛의 움직임에 따라 진동을 일으키는 ‘깜박거리고 현란한 셀룰로이드로 된 타이’를 착용하였다<sup>22)</sup>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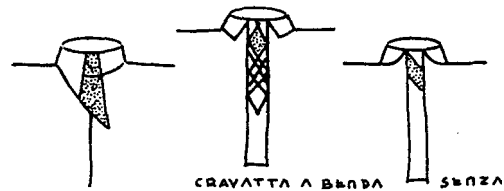
디 보소(Di Bosso)의 넥타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넥타이가 목을 두르고 앞에서 여머지는 것과는 다른 스타일로, 이는 앞에서 단순하게 고정시

키게 되어 있다(그림 10). 또한 이것은 평범한 소재를 사용하는 넥타이가 아닌 매우 가벼운 메탈릭 소재의 넥타이였다.

그리고 델레 시테의 경우는 그의 와이셔트의 칼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그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디자인의 넥타이를 선보였다. 비대칭 칼라에 금속으로 된 기하학적 형태의 플라케(plaque)를 사용하였다. 소재는 보통 알루미늄, 골드 및 실버로 된 메탈릭으로 광채를 띠고 있다. 이것은 좌·우측 칼라 사이의 공간을 다양한 모양으로 장식해 주고 있다(그림 11).



<그림 10> 디 보소의 4개의 안티 크라바트 (1933) 「Europe」



<그림 11> 델레 시테의 메탈릭 크라바트 (1932) 「Gegen den Strich」

22) Giovanni Lista, *Giacomo Balla Futuriste*, trans. Margaret Yaldwin, (Lausanne : L'Age d'Homme, 1984), p. 75.

### III. 결론 및 제언

미래주의는 혁신적 사상으로 과거를 부정하고 철저한 시대배경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시대관의 미적 감각으로 미래를 찬양하였다. 이와 같은 기치아래 미래주의 복식에서 주장하는 새시대의 새로운 미적 감각의 복식의 특징을 시대적 요구와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주의 남성복에서는 역동성, 비대칭성, 민첩성, 단순성과 편안함, 위생성, 활기참, 발광성, 의지성, 단명성, 가변성, 비상적이고 대기적인, 공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남성복 변형의 선언문에서는 제복같은 단조로운 일상복에 공격을 가하여 지금까지 입어왔던 의복의 착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의상의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간편한 의상으로 발전시킨 두마를 선보였다.

이와 같은 남성복 디자인은 의상개혁을 주장하였던 시대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분야지만 큰 변화 없이 일반화된 남성복의 중립적이고 지나치게 규범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대의 시대적 요구의 분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복 정장의 엄격한 규범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종류의 의상을 추구함으로써 간편하고 실용성이 높으며 용도의 다양성과 경제성을 갖춘 디자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비대칭성과 밝고 강한 색상을 사용한 순수한 도시적 해석의 기하학적 스타일로 과거의 정적인 신체구속의 의상에서 벗어난 동적인 의상으로 표현됨으로써 복식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미래주의 여성복에서는 단순성과 대칭의 지루함과 과거의 부활을 부정하고 속도 및 새롭고 대담한 창조성을 강조하고 패션의 역동적인 특성을 방해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적인 창조성과 새로운 형태의 의복을 창조하기 위한 대담성과 전후의 경제사정을 인식한 경제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복 디자인의 방향은 당대의 여성복 디자인이 디테일의 변화만을 거듭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창조성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며, 예술과 산업, 예술과 과학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구체화시킨 기계적 미의 과학적 의상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대담성을 갖출 것을 촉구한 것이며,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원료부족과 값비싼 전통 의상에 대한 거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탈피하려는 시대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래주의 모자 디자인에서는 복유럽풍의 검은 색과 중성색의 이용을 배격하고 기계문명시대의 속도의 미학과 실용의 미학에 어울리는 형태의 모자를 주장함으로써 전통적인 스타일과 모든 중성화에서 탈피한 비대칭 스타일의 다이내믹한 형태로 환상적인 분위기와 역동적인 분위기로 다양하게 디자인 하였다. 이는 현대생활의 빠른 흐름에 어울리는 신속성을 나타내고자하는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소재면에서도 다양함을 보여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산업화된 소재는 미래주의 넥타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낡은 넥타이 매듭을 거부하고 가볍고 광택 있는 금속으로 만든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이와 같은 소재에 대한 혁신은 소재에 대한 전위적인 해석으로 소재의 복합 재료 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양한 산업용 합성재료로 현대화된 문명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미래주의 복식은 전통적인 스타일에 대한 거부로 표현되어 새로운 시대의 생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정적인 의상이 아닌 동적인 의상으로 복식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이는 과거와의 단절과 강한 독창성으로 복식의 각 분야에서 일상적인 형태의 의복의 구조와 형태를 재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의상의 기능성을 소재에 둬으로써 재료의 혁명을 일으켜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새로운 20세기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당대의 의복에서 보면 하나의 혁신으로 아방가르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방가르드가 무대의상에 기여한 바와 20세기 초반의 모드에 미친 영향력은 이미 많이 연구된 바 있지만 일상생활에 입을 수 있는 의상을 만들어낸 공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앞으로 이 연구를 계기로 일상복에서의 예술가들의 공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1. Braun, Emily. "Futurist Fashion", *Art Jo-*

- urnal, 49, no. 1 (spring 1995): 34-41.
2. Brill, Suzanne. *Marinetti : the Futurist cook book*. San Francisco: Bedford Art, 1989.
  3. Crispolti, Enrico. *Il Futurismo e La Moda*, Venezia : Marsilio, 1986.
  4. Crispolti, Enrico. "Giacomo balla e la vestito futurista", *Domus*, 659(Marzo 1985).
  5. Horst de la Prix & Richard G. Tannery & Diane Kirkpatrick, *Art through the age*. H. B.J. public., 1991.
  6. Lista, Giovanni. *Balla*. Trans. Howard Rodger MacLean, Modena: Galleria Fonte d'Abisso, 1982.
  7. Lista, Giovanni. *Giacomo Balla Futuriste*. Trans. Margaret Yaldwin, Lausanne: L'Age d'Homme, 1984.
  8. Lista, Giovanni. (정진국 역), *미래파*, 서울: 열화당, 1991.
  9. Marientti, F. T. "Destruction of Syntax Imagination without strings-words in freedom" in *Pogginanella*, Giacomme Balla.
  10. Estate of F. T. Marinetti. *Futurist Cook-Book*. Trans. Suzanne Brill. SanFrancisco: Bedford Arts Publishers, 1989.
  11. Maurizio Fagiolo dell'Arco. *Balla The Futurist*. New York: Rizzoli, 1988.
  12. McLeod, Mary. "Undressing Architecture: Fashion, Gender, and Modernity", In *Architecture: In Fashion*,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13. Thayaht Ernesto. "Ernesto Thayaht(1893 ~1959): nouvelles perspectives." In *Europe 1910~1939: quand l'art habillait le vêtement*. Paris : Paris musées, 1997.
  14. Taylor, Christianal. *Futurism Politics, Painting and Performance*, Ann Arbor : umiresearch press, 1976.
  15. Encyclopedia of world Art, New York : McGraw-Hill Company, 1971.